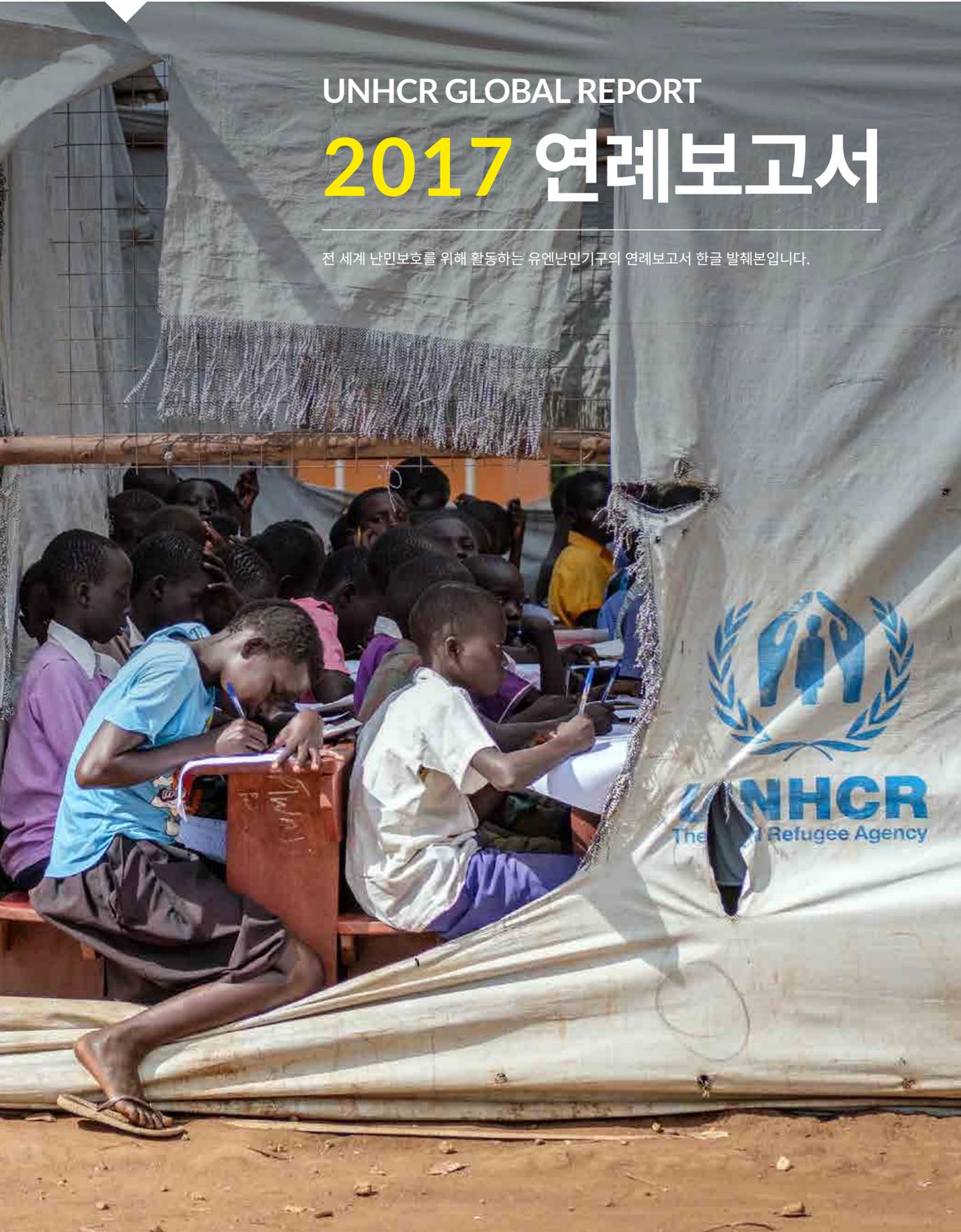


UNHCR GLOBAL REPORT

2017 연례보고서

전 세계 난민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유엔난민기구의 연례보고서 한글 발췌본입니다.



Contents

2017년 세계 난민 동향	4
2017년 월별 주요 활동	6
방글라데시 로힝야 긴급구호	10
유엔난민기구 직원 이야기	12
난민 보호 및 지원 활동	14
글로벌 재정보고	26
2017년 한국대표부 활동 보고	32
한눈에 보는 2017년	34

발행인 나비드 후세인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18년 6월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PSP)팀
 디자인 슬로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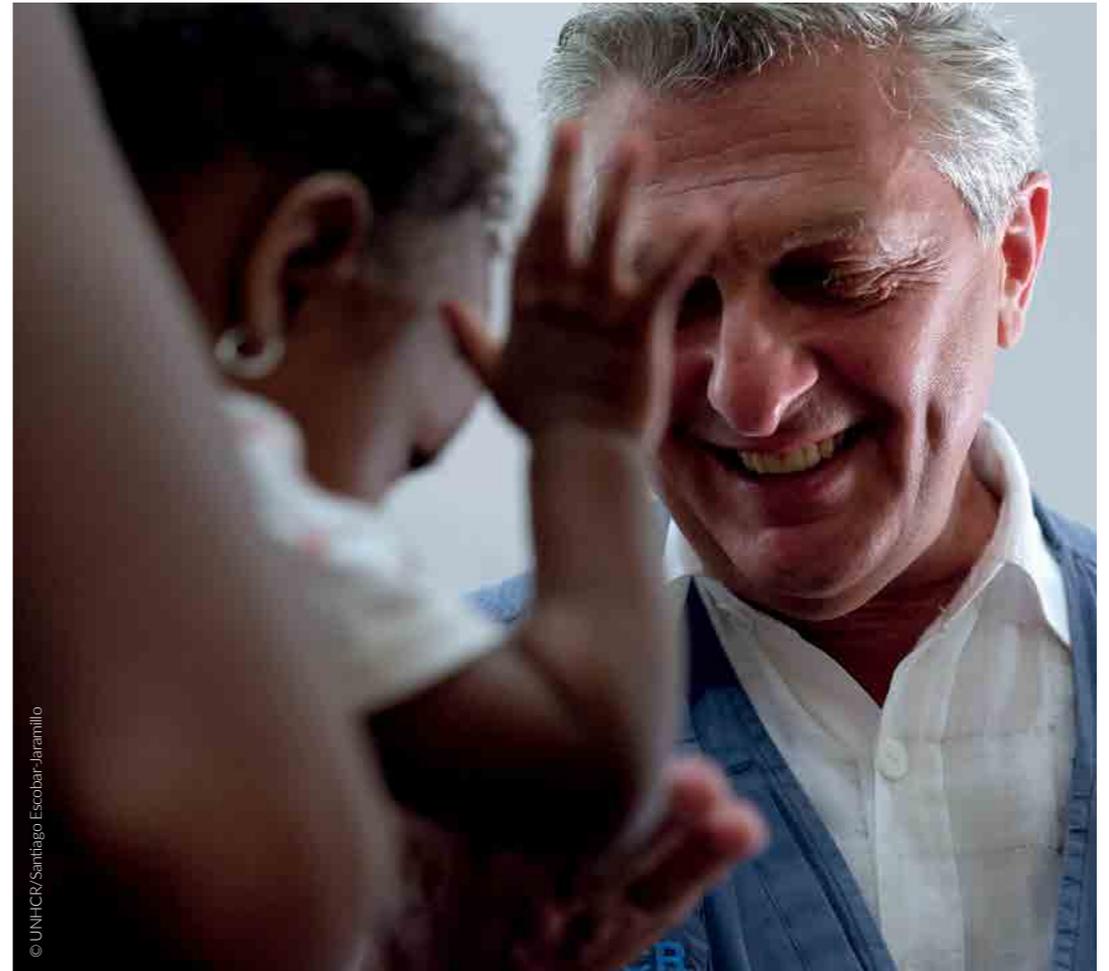


© UNHCR/Tito Herrera



전 세계 128개국 470개 지역에서 1만여 명의 유엔난민기구 직원이 6,850만 명에 이르는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를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2001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개소한 이래,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국내 난민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난민의 상황을 알리고 한국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본부는 매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연례보고서를 발행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난민보호 및 지원 현황을 각국 정부와 파트너, 후원자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한국대표부는 대한민국 파트너와 후원자들을 위해 매년 연례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한국어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례보고서 국문 발췌본과 영문 원본은 한국대표부 홈페이지(www.unhcr.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UNHCR/Santiago Escobar Jaramillo

2017년 후원자 여러분께서는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난민 가족들이 전쟁과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올라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셨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에게 임시 거처뿐 아니라 담요, 조리도구, 음식, 깨끗한 물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난민들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후원자님의 아낌없는 도움이 없었다면 이 어떤 지원도 제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난민들의 삶에 2017년 한 해 동안 후원자님께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셨는지 본 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엔난민기구 직원 모두를 대표해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함께한다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들이
 겪는 역경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2017년 세계 난민 동향

2017년 말 기준 난민 포함 전 세계 강제 실항민 수는 6,850만 명으로 6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6,560만 명보다 290만 명 늘어난 수치로, 오늘날 전 세계 110명 가운데 1명이 집을 잃고 피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강제 실항민 수는 세계 인구 순위 20위인 태국 전체 인구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분쟁과 남수단 내전,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로힝야 난민을 포함해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1,620만 명이 실항민이 되었습니다. 2초에 1명꼴로 강제 실항민이 발생한 셈입니다.



6,850만 명

전 세계 강제 실항민 수

난민 2,540만 명

- 유엔난민기구 등록 난민 1,990만 명
-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록 540만 명

국내 실항민 4,000만 명
비호신청자 310만 명



85%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체류하는 난민 비율

유엔난민기구 등록 난민의 85%에 해당하는 1,690만 명은 저소득 혹은 개발도상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난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70만 명은 세계 최빈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68%

2017년 전 세계 난민의 68%는 시리아(630만 명), 아프가니스탄(260만 명), 남수단(240만 명), 미얀마(120만 명), 소말리아(98만 6,400명) 5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52%

18세 미만 난민 아동

2009년 전체 난민 중 41%였던 18세 미만 난민 아동 비율이 2017년 52%로 증가했습니다.



17만 3,800명

보호자 없는 아동 난민 신청자

2017년 17만 3,800명의 아동이 전 세계 66개국에서 보호자 없이 홀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170만 명

신규 난민 신청자

2017년 170만 명이 난민을 신청했습니다. 2016년의 200만 명 보다 30만 명 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33만 1,700명의 신규 난민 신청을 받은 미국이 최다 난민 신청 접수국이 되었으며 독일(19만 8,300명), 이탈리아(12만 6,500명), 터키(12만 6,100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310만 명

비호 신청자

310만 명의 난민이 비호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개발 도상국에서 비호를 신청했습니다.



500만 명

귀환민 수

2017년 한 해 500만 명의 강제 실항민이 고국 혹은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 420만 명은 국내 실항민이며 이웃국가에 머물던 난민 66만 7,400명도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귀환민 수는 새롭게 발생한 강제 실항민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해 전체 강제 실항민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10만 2,800명

재정착 난민

2017년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와 협력해 7만 5,200명의 재정착을 지원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모두 10만 2,800명의 난민이 전 세계 각국에 재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20만 명

2017년 한 해 동안 분쟁이나 박해로 약 1,620만 명의 새로운 강제 실항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1,180만 명은 자국 안에서 실항 상태에 놓인 국내 실항민이며 440만 명은 새로 발생한 난민과 난민 신청자입니다.

지역별 난민 비율

단위: %

지역	비율 (%)
아프리카	31.4
유럽	30.7
아시아-태평양	21.1
중동	14.6
터키	17.5
아메리카	3.2

상위 10개 난민 비호국별 난민 수

단위: 명

터키	348만 348
파키스탄	139만 3,143
우간다	135만 504
레바논	99만 8,890
이란	97만 9,435
독일	97만 365
방글라데시	93만 2,216
수단	90만 6,599
에티오피아	88만 9,412
요르단	69만 1,023

국가별 국내 실항민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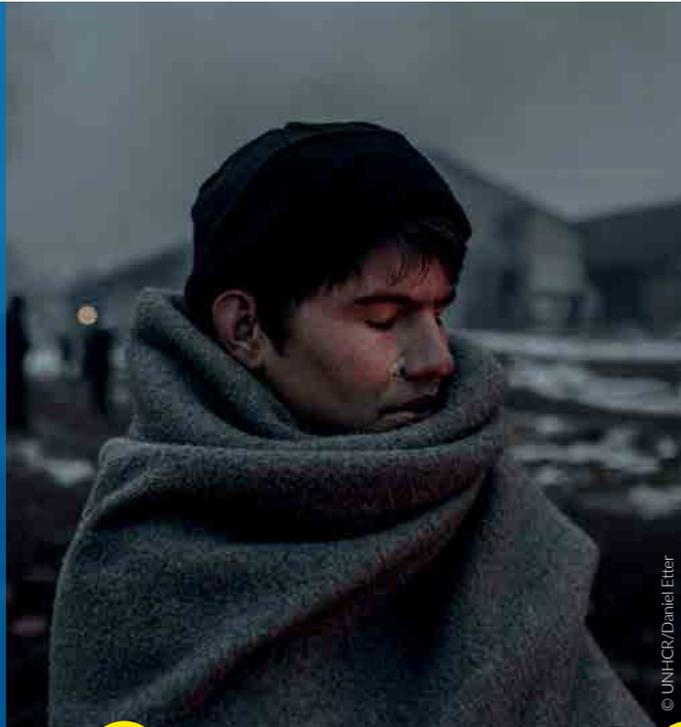
시리아	620만
콩고민주공화국	440만
이라크	260만
소말리아	210만
예멘	200만
수단	200만
남수단	190만
아프가니스탄	180만
우크라이나	180만

2017년 월별 주요 활동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을 포함한 전 세계 강제 실항민 6,850만여 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13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이루어낸 2017년 주요 활동을 알려드립니다.

1월 혹한기 난민 지원

전쟁과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 가족들은 영하의 날에도 길 위에서 긴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그리스에서 난민들이 더 나은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세르비아에서는 협력 기관과 함께 보온담요와 겨울 옷가지 등 월동 장비를 배포했습니다.



© UNHCR/Daniel Etter

1

2월 남수단 난민 지원

남수단 분쟁이 심화하면서 안전을 찾아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의 숫자가 1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남수단 난민 사태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입니다. 우간다로 피난한 남수단 난민의 86%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현지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은 후원자님의 도움을 통해 난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2

3월 시리아 내전, 그 후 7년

시리아 분쟁이 시작된 지 7년째인 2017년, 유엔난민기구는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국제 사회에 더 많은 지원을 호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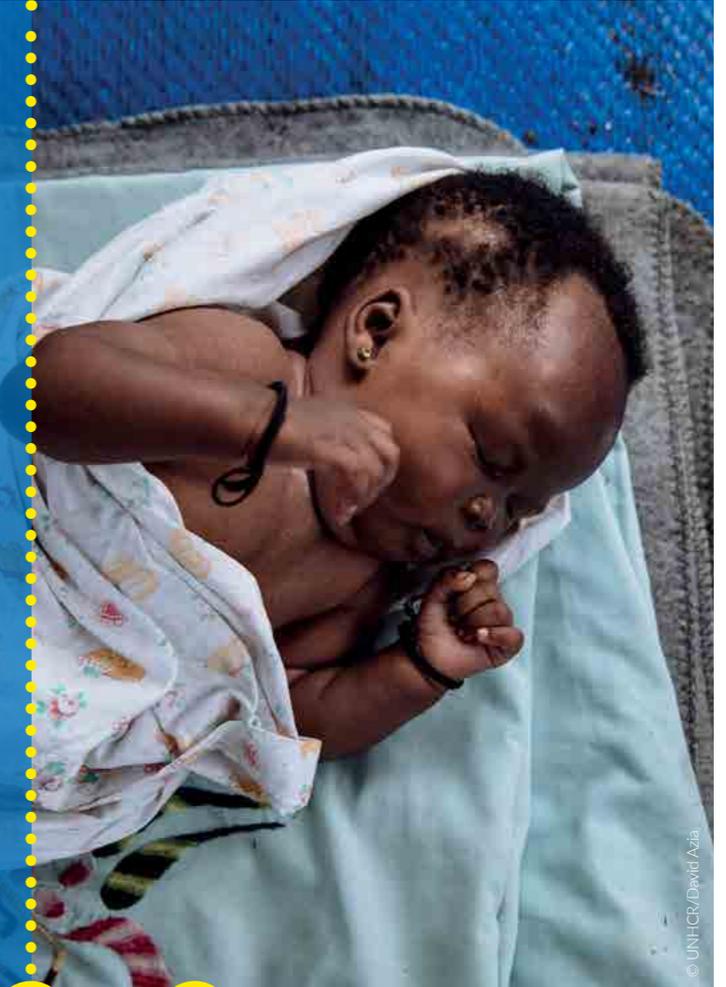
“궁극적으로 시리아 분쟁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가족들은 흩어졌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으며, 집들은 파괴되고 이들의 터전과 생계는 무너졌습니다.”

-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

3

5월 남수단 난민 아동 지원

남수단 분쟁이 3년째에 접어들면서 피난길에 오른 아동의 숫자도 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남수단 난민 인구 전체의 62%를 차지합니다. 남수단 난민 대부분은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로 피난하고 있습니다. 이 중 7만 5,000명 이상이 홀로 국경을 넘는 아동입니다.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은 현지에서 난민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는 지원 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하였습니다.



© UNHCR/David Azia

4

4월 아프리카·예멘 '기아 4개국' 긴급구호

아프리카의 뿔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과 예멘, 나이지리아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머무는 난민과 국내 실항민 등 2,000만 명 이상이 이미 기아상태에 놓여있거나 기아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유엔난민기구는 협력 기관들과 긴급 식량 지원, 의료 지원, 식수 지원 등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5

6

6월 라마단 기간 난민 후원 캠페인

6월은 이슬람교도들에게 성찰, 모임, 자선의 시간인 라마단이 마무리되는 달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모임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중동에 머무는 난민을 위해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자카트(Zakat), 즉 자선용 세금을 기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난민 가족을 위한 개인 후원자, 재단, 기업들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2017년 라마단 캠페인을 통해 미화 400만 달러 이상이 모금되었습니다.



© UNHCR/Roger Arnold

8월 로힝야 난민 긴급구호

미얀마 라카인(Rakhine) 주(州)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난민들이 인근 방글라데시로 피난하였습니다. 이들은 밤낮을 걸어 밀림과 산을 넘고 위험한 바닷길을 건너는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로힝야 사태는 2017년 가장 급속도로 진행된 난민 사태였습니다. 첫 100일 동안 유엔난민기구는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담요 17만 8,000장, 조리도구 3만 8,000개를 포함한 긴급구호 물품을 배포했습니다. 10만여 명의 로힝야 난민이 식수와 위생시설을, 6만여 명은 의료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았습니다.

7 8

7월 이라크 모술 귀환민 지원

이라크 정부군이 승리를 거두면서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진 도시 모술(Mosul)로 일부 난민이 귀환했습니다. 상흔으로 얼룩진 도시로 일부 난민이 귀환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전쟁으로 파괴된 가옥을 수리하고, 가게와 사업체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귀환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장 취약한 난민 가족을 대상으로 임시 거처와 현금지원을 제공했습니다.

9월 예멘 내 소말리아 난민 지원

유엔난민기구의 1차 귀환 지원을 통해 소말리아 난민 100여 명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위태로운 예멘의 현지 상황을 고려해 유엔난민기구는 예멘 내 난민과 비호 신청자 총 28만여 명 가운데 91%를 차지하는 소말리아 난민의 자발적 귀환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귀환을 원하는 난민 1만여 명을 지원하는 한편, 예멘에 머무는 난민도 지속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9



© UNHCR/Alessandro Penso

12월 리비아 체류 난민 피난 지원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예멘 출신 난민 162명이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피난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싱글맘, 보호자 미동반 아동, 장애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오래 머문 데다 피난 과정에서 인신매매단 등에 학대를 당한 탓에 모두 의료 지원과 심리상담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리비아 현지 유엔난민기구 직원의 동행 아래 이탈리아로 건너왔고 유엔난민기구의 보호 아래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았습니다. 더 많은 난민이 리비아에서 구출될 예정입니다.

10

10월 에티오피아 거주 난민 가족 관계 등록 지원

사상 처음으로 에티오피아에 사는 난민들도 출생, 사망, 결혼 등 가족 관계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와 유니세프의 도움으로 에티오피아 정부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했기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출생 등록은 아동에게 법률적 신분을 부여해 아동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11

11월 요르단 난민촌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요르단 자타리(Za'atari) 난민촌 안에 건설된 것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독일 정부의 후원으로 설치된 이 발전소는 깨끗한 에너지를 8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과 현지 주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합니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은 매년 1만 3,000톤이 줄고, 전기 사용 시간은 하루 8시간에서 13시간으로 늘어나 난민촌의 생활 환경과 안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초에는 이케아 재단과 함께하는 '새빛 캠페인(Brighter Lives for Refugees)'을 통해 요르단 아즈라크(Azraq) 난민촌에 세계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었습니다.

12

방글라데시 로HING야 긴급구호

2017년 8월 이후 미얀마의 참혹한 폭력 사태에서 탈출한 로HING야 인이 대규모로 방글라데시로 피난하면서 로HING야 난민 사태는 2017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된 난민 사태로 기록됐습니다. 로HING야 난민 사태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671,000명

2017년 8월 이후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로HING야 난민 수
(2018년 2월 기준)

80%

로HING야 난민 중
여성과 아동 비율



© UNHCR/Andrew McConnell

로HING야족은 누구인가요?

로HING야족은 미얀마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민족으로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무국적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차별을 겪으며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왔습니다. 국적을 인정받지 못한 탓에 이동의 자유나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등 사회권, 시민권, 정치권 등 인간의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었습니다. 미얀마에서 탈출한 로HING야족은 이제 무국적자인 동시에 난민이 되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난민은 어떤 상태인가요?

매우 지치고 굶주려 임시 거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수가 갓난아이를 동반한 어머니들이거나, 아동을 동반한 가족들입니다. 대부분 식량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로 며칠 밤낮을 걸어 피난했습니다. 위태로운 뗏목에 의지해 필사적으로 미얀마를 탈출한 로HING야인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 오른 피난길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후원이 로HING야 난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유엔난민기구는 로HING야 난민에게 임시 거처와 깨끗한 물,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등 오늘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난민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담요, 취침 매트, 텐트, 조리도구, 물통 등 구호 물품을 현지에 급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촌이 된 쿠투팔롱(Kutupalong) 난민촌을 정비하는 등 난민의 엄청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 및 협력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HING야 난민 사태 발생 이후 6개월 동안 유엔난민기구와 협력 기관이 제공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08,433장
방수천



46,958개
양동이



44,071개
조리도구



86,867개
방충망



217,932장
담요



87,978개
물통



217,720개
취침 매트



2017년 8월부터 **20회** 이상의
구호 물품 공수가 이뤄졌습니다.



현지에 유엔난민기구 직원
2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15만 5,000여 명의
난민이 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23만 1,000명의 난민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 UNHCR/Roger Arnold

유엔난민기구 직원 이야기:

유엔난민기구 구호 물품 공급망 책임자를 만나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구호 상황에서 담요와 텐트, 식량, 식수 등 구호 물품을 재난 발생 초기에 즉시 제공하는 것은 난민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유엔난민기구의 공급 관리 및 물류 책임자, 애나 스피들러(Anna Spindler)는 2017년 한 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무실 대신 방글라데시, 시리아, 우간다, 앙골라와 그 외 긴급구호 현장에서 전문 구호 인력을 곳곳에 파견하고 구호 물품 운송을 총괄했습니다. 현장에 구호 물품을 보급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녀가 긴급구호 상황에서 난민에게 어떻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지 직접 설명해드립니다.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 사태와 같은 긴급구호 상황에서 구호 물품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로힝야 사태가 일어난 후 가장 처음 했던 일은 곧바로 수송 가능한 물품과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케냐 나이로비, 우간다 캄팔라, 카메룬 두알라, 가나 아크라, 요르단 암만,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일급 곳의 물품 비축고에서 물품 수송을 시작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현지의 비축 물품을 확인하고 직원도 파견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구호 물품을 후송하는 것은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현지 주요 항구가 마비 상태가 되어 컨테이너와 배들이 항구에 발이 묶여 물품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로나 다른 항구, 항공 운송 등 다른 경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결국은 항공 운송으로 총 21회 구호 물품을 조달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비행기에 실어서 보내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항공 수송은 생각보다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 도착지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는지, 비행기에서 물품을 내릴 수 있는 장비가 도착지에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각종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구호 물품 공급은 단순 물품 전달을 넘어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호 물품 공급은 단순 물품 전달을 넘어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애나 스피들러 유엔난민기구 공급 관리 및 물류 책임자

많은 난민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2017년 11월 방글라데시를 찾았을 때 무릎에 아기를 얹혀놓은 어떤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난민촌에 도착한 로힝야 난민이었습니다. 아내는 근처에 앉아 있었는데 당뇨를 앓고 있고 6개월 전에 몸이 마비됐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뇌졸중이 왔었던군요.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7명이 있었는데 피난 중에 모두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여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기를 업고 아내와 함께 열흘 밤낮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어깨를 보여줬는데 살갓이 다 까져있었고 맨눈으로 보기도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61살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그 남성을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잃어버렸던 아이들을 모두 다시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을 비롯한 모든 난민의 용기에 저는 매번 감명받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은 후에도 다시 삶을 살아보려는, 그리고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찾아보려는 강인함과 의지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품들이 실제로 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팀이 책임지고 물품을 전달하고 있고 저 역시 현장에서 모든 과정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감’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물론 강제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공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에 도착한 난민들은 여러분의 다정한 얼굴과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액수의 후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강인함, 용기,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의지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큰 희망과 힘이 됩니다.

“아주 작은 액수의 후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강인함, 용기,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의지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큰 희망과 힘이 됩니다.”

애나 스피들러 유엔난민기구 공급 관리 및 물류 책임자

2017년 지원된 필수 구호 물품

긴급구호 상황이 발생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각지에 배치된 물품 창고와 네트워크를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난민 보호 및 지원 활동



1분마다 20여 명의 사람이 분쟁과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오릅니다. 2017년 한 해 여러분의 도움으로 저희는 세계 곳곳의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난민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임시 거처와 식량, 물, 의료 지원 등의 난민 지원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1. 난민 등록과 법적 보호

난민 등록 절차를 통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 한 해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유엔난민기구는 세계 각지에서 분쟁과 박해로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유엔난민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특히 로힝야 난민 돌루(Dolu)를 비롯한 노인과 아동 등 취약 계층 난민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가장 필요한 때에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야기 하나. 난생처음 신분증을 갖게 된 로힝야 난민 돌루의 이야기

주소가 있다는 것, 그리 대단한 일 같지 않지만 돌루 같은 난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 들었고 몸도 아픕니다. 이제는 더 살 곳을 옮겨 다닐 힘이 없어요." 올해 75살인 돌루는 유엔난민기구의 가족통계팀이 파악한 수십만 명의 로힝야 난민 중 한 명입니다. 유엔난민기구 가족통계팀은 쿠투팔롱(Kutupalong) 난민촌 언덕에 사는 난민들에게 식량, 조리도구, 임시 거처 키트 등의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통계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고유 번호와 함께 코팅된 노란색 카드를 받게 됩니다. 많은 이에게 이 카드는 난생처음 받아보는 신분증명서이자 생존을 위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주소가 생겼어요.
제 삶이 이제야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

로힝야 난민 돌루

2. 임시 거처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피난한 난민들에게 따뜻한 거처가 생겼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 길 위에 오른 난민 가족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험난한 피난길 끝에 마침내 유엔난민기구가 제공한 임시 거처에 도착해 잠든 아이를 낚는 순간의 안도감을 상상해보세요. 작년 한 해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조립식 주택과 텐트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 거처를 제공해 난민을 포함한 강제 실항민에게 다시 '집'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또 칼리드(Khalid) 가족처럼 떠나온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난민 가족을 위해 파손된 집을 보수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 피난 후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간 칼리드 가족 이야기

칼리드, 타나아 부부 그리고 아이들이 이라크 팔루자(Falluja)를 떠나 피난길에 오른 것은 지난 2014년입니다. 2년 후, 정부군이 전투에 승리해 도시를 탈환한 이후 다시 돌아온 집은 예전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재와 약탈의 흔적이 그대로 있었고 지붕도 무너져있었습니다. 칼리드 가족을 비롯해 팔루자에 살던 600여 가구는 유엔난민기구와 협력 기관으로부터 가옥 수리 지원을 받았습니다. 집 벽을 다시 세우고 전기 배선도 다시 깔았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다시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타나아 같은 어머니들에게 집을 다시 찾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엔난민기구에 받은 지원은
마치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살던 집으로 돌아오게 돼서
가족 모두가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이라크 난민 칼리드



NOBODY LEFT OUTSIDE

전 세계 난민에게
희망의 지붕을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200만 명의 난민에게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쉼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한 2016년 5월 이후 전 세계 개인, 기업, 재단 후원자로부터 미화 2,000만 달러가 모금되었습니다.

후원자님의 관심과 참여로 수많은 난민이 매일 밤 안락하게 잠을 청할 수 있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라크

버려진 건물을 보수해 다가구용 임시 거처 (Collective Shelter)를 만들어 이라크 국내 실항민 1만 2,500여 명에게 제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난민을 위해 분쟁으로 파괴된 4,000여 채의 집을 보수했습니다.



르완다

3만 5,000명의 부룬디 난민에게 최대 8명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듀얼 쉼터(Dual Shelter)를 제공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미안마의 분쟁과 박해를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로힝야 난민에게 3만 개의 쉼터 키트를 배포했습니다. 14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이제 안전한 곳에서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케냐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난민 가정을 위해 휠체어나 목발로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임시 거처 1,500여 채를 제공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특수 지원이 필요한 난민에게는 장기적인 거처가 정해질 때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7,000여 채의 임시경유쉼터(Transit Shelter)를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망가진 가옥 750여 채를 보수했습니다. 또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가옥들에 보수를 진행해 3만 명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살던 곳으로 돌아갔지만, 집이 완전히 무너져 갈 곳을 잃은 귀환민을 위해 가옥 30여 채를 새로 지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의 일상화된 집단 폭력 사태를 피해 피난한 난민 2만 5,000여 명에게 임시경유쉼터(Transit Shelter)를 제공했습니다.

“난민에게는
‘특별한 집’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집’은
난민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삶을 다시 일궈나갈 수 있는
성역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멜리사 플래밍(Melissa Fleming)
유엔난민기구 대변인



3. 깨끗한 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얼마나 자주 쓰시나요? 깨끗한 물이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힘들지만, 피난길에 오른 난민에게 물을 구하는 일은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 길을 걸어 어렵게 구한 물이 오염된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질병이 쉽게 퍼지기도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2017년 난민 가족이 깨끗한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학교와 집, 병원에 화장실을 비롯한 위생시설도 설치했습니다. 모잠비크에서는 난민뿐 아니라 난민촌 주변에 사는 헬레나(Helena) 같은 현지 주민도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으로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셋. 깨끗한 물을 제공받은 모잠비크 주민 헬레나의 이야기

모잠비크 마라타네(Maratane) 난민촌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 헬레나는 유엔난민기구가 설치한 식수펌프 덕분에 생활에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더이상 아이를 업고 먼 길을 걸어 물을 길어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헬레나는 유엔난민기구가 2017년 모잠비크 마라타네 난민촌 주변에 설치한 8개의 식수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뿐만 아니라 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지 지역 사회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웠던 난민촌 주변 현지 주민들도 마음 놓고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난민촌 안에 설치된 식수 시설의 혼잡도 줄었고 현지 주민들의 농사일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고가는 길에 무서운 일을 당할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모잠비크 지역 주민 헬레나

4. 영양

난민 가족이 영양가 있는 식량을 제공받고 직접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양실조가 5세 미만 난민 아동의 최대 사망 원인 중 하나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매년 수백만 명의 난민이 영양실조 혹은 영양이 부족해 나타나는 예방 가능한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쉘(Sham) 같은 난민 가족들이 농작 기술을 배워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야기 넷. 미래를 수확하는 쉘의 이야기

쉘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은 바로 농장에 갈 때입니다. 쉘의 농장은 남수단 도로(Doro)난민촌 인근에 있습니다. 올해 39살, 여섯 아이의 아버지인 쉘은 2011년 무장 세력이 마을을 덮쳐 고향인 수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에서도 농사를 지었지만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그에게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촌에서 제공하는 '농부학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쉘의 가족은 이제 그가 직접 기른 채소와 농작물로 식탁을 채웁니다. 수확한 채소를 장터에서 팔기도 합니다. 농사기술로 경제적인 자립도 이뤄낸 것입니다. 쉘은 이제 주변 난민에게도 자신이 배운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배운 지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단 난민 쉘

“제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시리아 난민 파라



5. 보건

난민 가족이 생명을 구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살던 곳을 떠난 난민들은 대부분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로 난민촌에 도착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난민이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 서비스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도움 덕분에 2017년 9월 기준 전 세계 730만여 명의 난민이 양질의 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8살 시리아 난민 파라(Farah)는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꿈을 되찾은 수많은 난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야기 다섯. 의사를 꿈꾸는 난민 소녀 파라의 이야기

파라의 꿈은 의사입니다. 여느 또래처럼 꿈 많은 소녀인 파라는 오랜 피난 생활로 영양이 부실해진 탓에 키도 몸무게도 평균치를 훨씬 밑돕니다. 파라는 올해 8살이 됐지만, 또래보다 훨씬 더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오랜 피난 생활로 영양이 부실해진 탓입니다.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지 검진이 필요하지만 파라의 가족은 형편이 어려워 요르단에 정착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빵 몇 조각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후원자님의 도움 덕분에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해 파라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난민이 진료와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난민 가족들이 매달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현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파라는 앞으로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후원자님의 도움 덕분에 파라는 이러한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교육

난민 아동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난길에 오르는 순간 난민 아동은 교육의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난민 아동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교로 돌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학교를 짓고,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난민 아동이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소말리아 소녀 아프라(Afrah)와 같은 난민들이 미래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 여섯.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된 아프라의 이야기

아프라에게는 책상, 의자, 교과서보다 폭탄, 총알, 가난이 더 익숙합니다. 예멘에 사는 12살 소말리아 난민 소녀 아프라는 내전을 피해 소말리아를 탈출했지만, 이제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예멘에 살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프라에게는 전쟁도 막을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해 의사라는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예멘 내 각 지역에 교육 관련 기자재와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유아 교육 프로그램, 비정기수업, 아동보호 및 사회심리문제에 대한 교사·교육행정가·사회복지사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쟁으로 파괴된 학교 건물을 재건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이 생겨서
행복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 거예요.”

소말리아 난민 아프라



7. 재정착

후원자님은 난민 가족들에게 새로운 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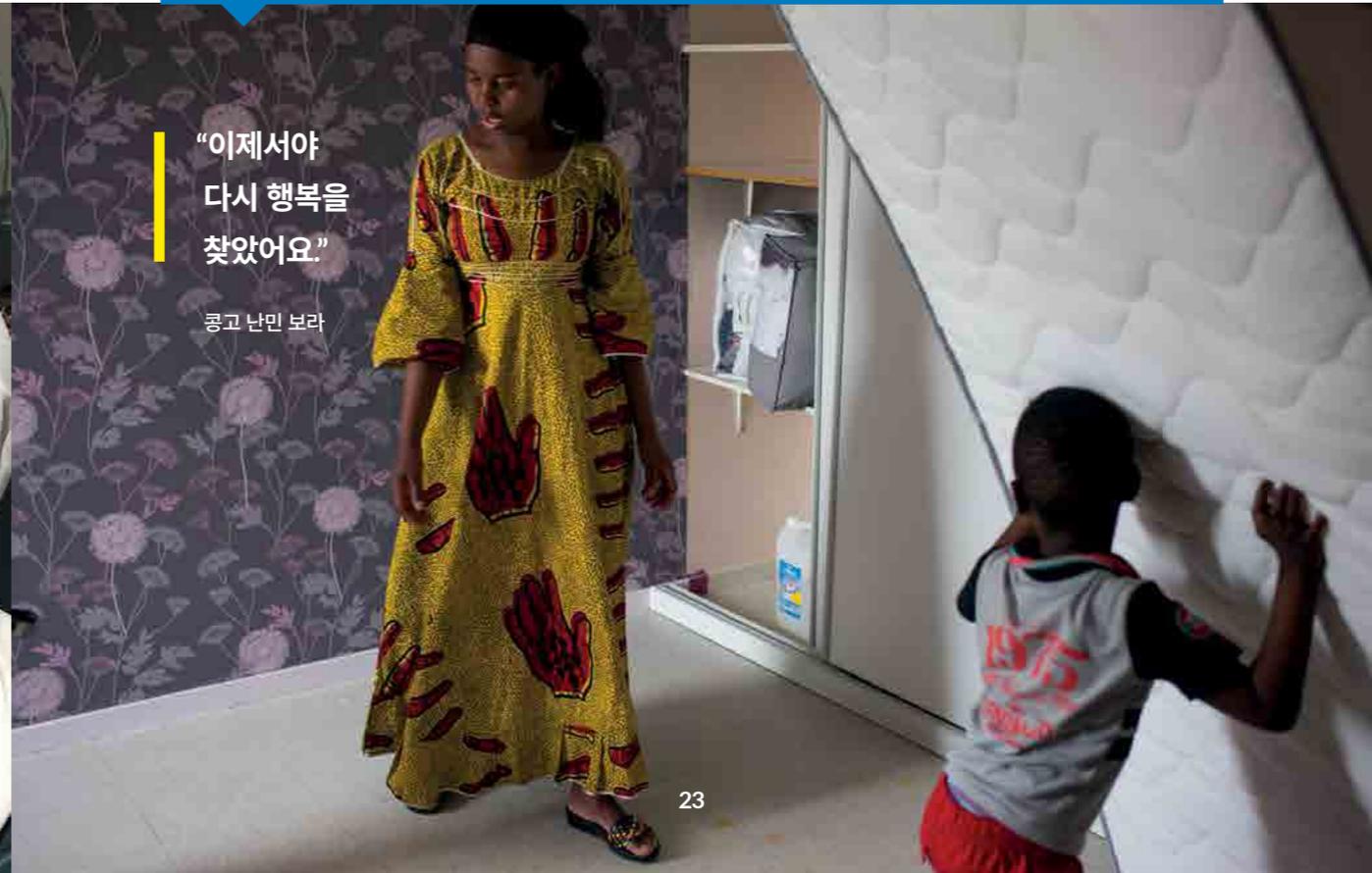
유엔난민기구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난민들이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후원자님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2017년에도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난민의 자발적 귀환과 새로운 사회로의 정착을 지원했고 무엇보다 난민들이 다시 ‘집’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보라(Bora) 가족과 같은 수많은 난민이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일곱. 보라와 아이들에게 다시 찾아온 기회

보라에게 24년 인생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고국인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분쟁으로 부모님을 잃은 보라는 슬픔 속에 남아프리카로 피난했습니다. 새로 정착한 곳에서 결혼도 하고 두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남편이 강도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마저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보라에게도 다시 행복을 찾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에 재정착한 보라는 다섯 살 아미나, 일곱 살 이브라힘 두 아이와 함께 다시 삶을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보라 가족과 같은 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다시 행복을
찾았어요.”

콩고 난민 보라



8. 생계

난민들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 자리를 통해 생계를 꾸리는 것은 난민이 자존감과 존엄성을 회복하고 미래를 재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난민과 현지 지역 주민의 직업 훈련을 진행하고,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야기 여덟. 생계를 위한 평생 기술을 배우게 된 아이샤와 자닌의 이야기

아이샤(Aisha)는 매일 아침 우간다 서부에 있는 한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우간다 지역주민인 아이샤는 20여 명의 난민과 5명의 지역주민으로 이뤄진 수산업 협동조합의 일원입니다.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어부가 된 두 아이의 어머니 아이샤는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게 되어 몹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매일 시장에 내다 팔고, 수입을 회원들과 함께 저축했습니다. 종자돈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아 식당과 가축사육 등 작은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콩고 난민 자닌(Janine)도 이 협동 조합의 회원입니다. 첫 대출로 새끼를 밴 암돼지를 장만했고 어린 돼지를 판 돈으로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아이샤와 자닌 같은 난민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하는 당당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우리 난민들은
함께 일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콩고 난민 자닌

글로벌 재정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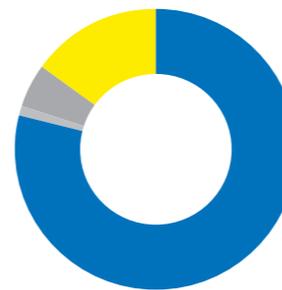
2017년 유엔난민기구의 필요 예산은 2016년보다 5억 5,300만 달러 증가한 79억 6,300만 달러였으며 각국 정부 및 정부 간 기구, 협력 기관, 민간 후원자로부터 38억 4,00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또한, 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난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40억 8,300만 달러의 비용을 집행했습니다.

필요 예산

유엔난민기구의 필요 예산은 2010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수요조사(Global Needs Assessment, GNA)를 바탕으로 책정됩니다. 글로벌 수요조사는 해당국 정부, UN기구, 비정부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각 지역사무소가 담당하는 국가별 보호대상자의 수와 사업 필요성을 조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2개년간 보호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을 구상하고,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Executive Committee, ExCom)의 승인을 통해 확정됩니다.

글로벌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확정된 유엔난민기구의 2017년 확정 예산은 2016년보다 4억 5,300만 달러 증가한 약 79억 6,300만 달러였습니다. 필요 예산에는 1월 남수단 사태 긴급구호, 6월 콩고민주공화국 사태, 9월 미얀마 로힝야 난민 사태, 8년째에 접어든 시리아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책정된 긴급구호 활동 추가 예산 8억 3,210만 달러가 포함되었습니다.

프로그램별 필요 예산



● 난민	79%
● 국내실향민	15%
● 현지통합	5%
● 무국적	1%

긴급구호 활동을 위한 추가 예산

단위: 미화

지원 부문	필요 예산
남수단	373,500,000
시리아	146,000,000
소말리아	85,000,000
지중해 난민	56,700,000
미얀마	53,600,000
나이지리아	49,700,000
콩고민주공화국	34,300,000
부룬디	33,300,000
총	832,100,000

수입

유엔난민기구의 수입의 대부분은 각국 정부 및 정부 간 기구, 민간 등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조성됩니다. 2017년에는 2016년보다 약 6,225만 달러가량 줄어든 약 38억 4,000만 달러의 자발적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UN분담금과 2016년 이월금, 조정, 환율 및 그 외 출처로부터 얻은 순이익 등이 더해져 2017년 유엔난민기구의 총 가용 기금은 2016년보다 약 9,900만 달러 늘어난 45억 1,000만 달러였습니다.

2017년 수입 세부 내역

자발적 후원금

단위: 미화

구분		비용		
2017년 수입	자발적 후원금	정부 및 유럽연합(EU)	3,365,000,000	3,840,000,000
		민간후원	400,000,000	
		정부 간 기구 및 UN 기금*	75,000,000	
	UN 분담금**		43,000,000	
2016년 이월금과 조정 환율 및 그 외 출처로부터 얻은 순이익을 더한 2017년 총 가용기금			4,51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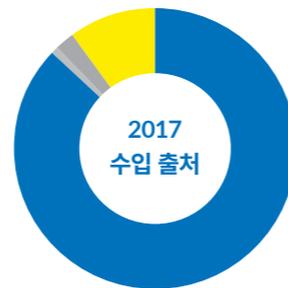
*UN 기금(UN-managed pooled and trust funds) **UN 분담금(UN regular budget)

2017년 수입 출처

2017년 수입의 89%는 각국 정부와 정부 간 기구에서 조성됐고 10%는 개인과 기업, 재단 등 민간 영역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조성됐습니다. UN 본부로부터 한 해 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UN 분담금 조성 수입은 1%에 불과했습니다.

수입 세부 출처를 살펴보면, 2017년 수입의 61%는 미국 정부, 독일 정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조성됐고, 기금의 79%는 상위 10개 후원국(미국, 독일, 유럽연합(EU), 일본 정부, 영국 정부, 스웨덴 정부, 노르웨이 정부, 캐나다 정부, 스페인 민간영역, 네덜란드 정부)에서 조성됐습니다.

한편, 전체 수입의 15%는 비지정기금, 나머지 85%는 특정 지역 혹은 부문을 지원하는 지정 기금이었습니다. 비지정기금은 갑작스러운 난민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현장 상황에 맞춰 가장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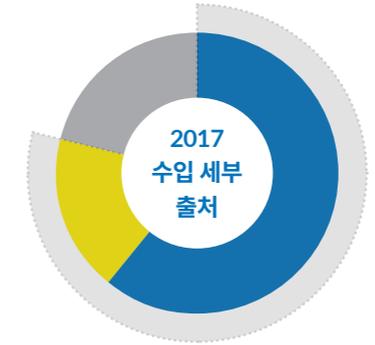
● 각국 정부 및 유럽연합(EU)	87%
● 민간후원	10%
● 정부 간 기구 및 UN기금	2%
● UN 분담금	1%

민간후원(Private Sector Fundraising)

민간 후원금은 개인과 기업, 재단 등 민간 영역 후원자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뜻합니다. 2014년 이후 민간 영역 후원은 두 배로 증가해 2017년 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7년 전체 수입의 1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후원자별로 분류했을 때, 2017년에도 개인 후원자가 민간 영역 후원금의 약 69%에 달하는 2억 7,600만 달러를 후원했습니다. 개인 후원자 규모도 2016년보다 22% 늘어난 19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31%에 해당하는 1억 2,400만 달러는 기업과 재단, 개인 자산가로부터 조성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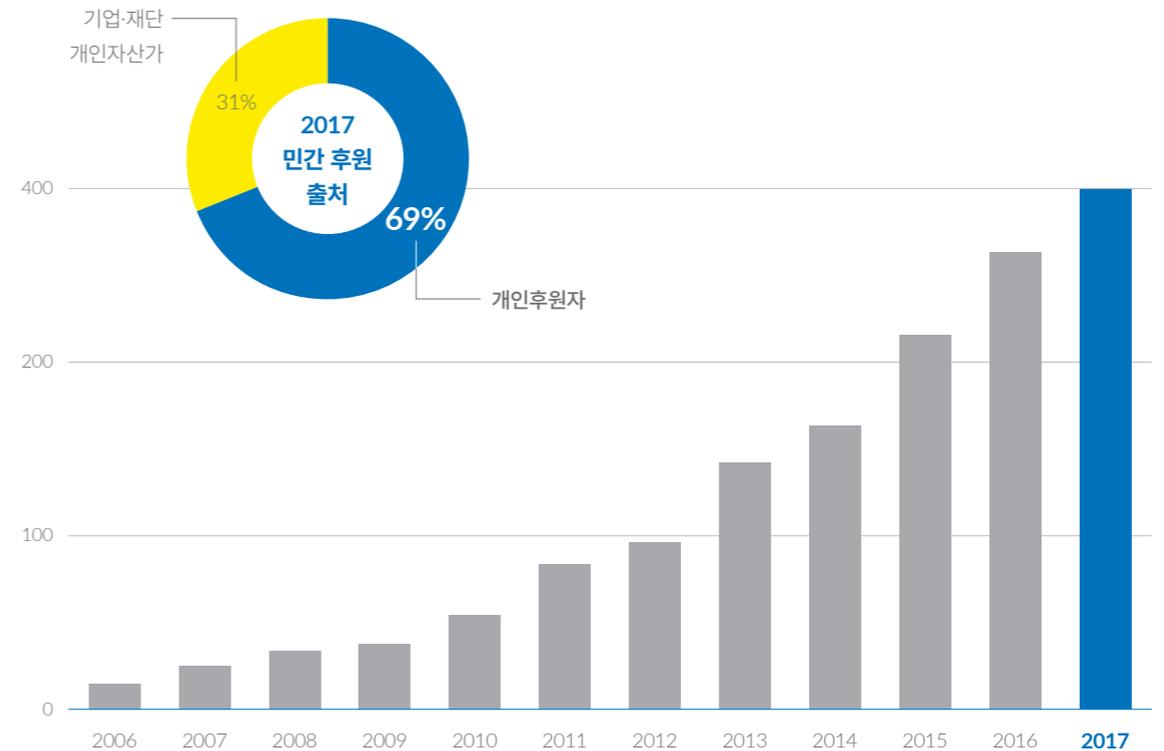
국가별로 분류했을 때, 2017년에는 대한민국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한국 민간 영역에서 조성한 민간후원금이 스페인과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일본과 독일, 카타르, 호주,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순으로 국가별 민간 후원금이 조성됐습니다.



● 상위 10개국	79%
● 상위 3개국	61%
● 상위 3개국 제외한 7개국	18%
● 기타	21%

2006-2017 연도별 민간 후원 규모 및 민간 후원금

단위: 백만 달러



지출

2017년 유엔난민기구는 2016년보다 1억 1,630만 달러 증가한 총 41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지출이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6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특히 우간다, 소말리아, 앙골라 지역에서의 지출이 늘었습니다. 이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지출이 전체의 30%를 나타냈으며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미주 지역에서는 각각 12%, 7%, 2%의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이라크와 시리아 사업비 지출이 줄어 7% 감소했고, 아시아 지역은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의 사업비 지출이 줄면서 전체 비용은 2016년보다 23% 감소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그리스와 터키 사업비 증가의 영향으로 2016년보다 지출이 11% 늘었고, 미주 지역의 지출 규모는 북미와 중앙아메리카 및 베네수엘라 현장 사업비가 늘어나 2016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는 글로벌 프로그램*과 본부 사무소의 지출은 각각 9%와 6%를 차지했습니다.

프로그램별로는 전체 지출의 83%가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됐으며, 국내 실행민 14%, 현지통합 2%, 무국적자 1% 순으로 사업비가 지출됐습니다.

*글로벌 프로그램

전 세계 사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난민보호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난민 등록 및 지식 데이터 관리, 직원 교육 및 현장 안전 관리, 보급 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직접적인 난민보호 활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지원 업무의 범위와 성격을 고려해 각 지역 혹은 국가별 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의 예산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의 원칙 아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이 전 세계 난민보호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 영구적인 난민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기구

UN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보호와 난민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기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최대 60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책임성 — 책임 있는 난민보호 활동

유엔난민기구는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난민을 비롯한 보호 대상자들 곁을 항상 지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황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책임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 투명한 후원금 운영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유엔난민기구의 난민보호 사업에 쓰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모아진 후원금 전액은 익월 유엔난민기구 본부로 송금되어, 유엔난민기구의 연례 계획과 긴급구호 대응 필요에 따라 전 세계 난민보호 사업에 사용됩니다.



● 아프리카	34%	● 아시아-태평양	7%
● 중동 및 북아프리카	30%	● 본부	6%
● 유럽	12%	● 미주	2%
● 글로벌 프로그램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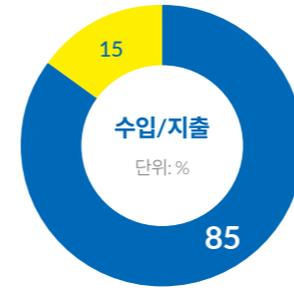


● 난민	83%	● 현지통합	2%
● 국내 실행민	14%	● 무국적자	1%

한국대표부 재정보고

대한민국 정부 후원금

2017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에 미화 총 21,845,151달러를 후원했고,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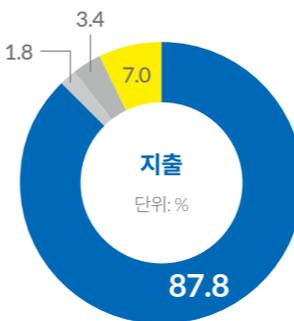
기탁 구분	단위: 미화
● 지정 기탁	시리아 등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따른 유엔난민기구의 추가 대응 사업 등 18,431,702
● 비지정 기탁	유엔난민기구 연간 사업 계획에 따른 지원 3,413,449
총	21,845,151

민간 후원금

2017년 개인, 기업, 재단 등 민간 부문에서는 원화 총 40,799,844,385원이 조성되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수입	단위: 원화
● 개인	40,045,080,898
● 기업, 단체	754,763,486
총	40,799,844,385



지출	단위: 원화
● 가장 필요한 곳에	35,823,022,262
● 긴급구호	시리아 긴급구호 (5.0%) 2,042,237,402 전 세계 긴급구호 활동 (1.6%) 664,491,677 로힝야 긴급구호_방글라데시 (0.2%) 70,000,000 예멘 긴급구호 (0.1%) 50,000,000 동아프리카 긴급구호 (0.0%) 17,782,000
● 글로벌 쉼터 캠페인	글로벌 쉼터 캠페인 (3.3%) 1,343,271,044 글로벌 쉼터 캠페인_방글라데시 (0.1%) 50,000,000 글로벌 쉼터 캠페인_우간다 (0.0%) 16,785,000
● 기타 기금	SBS 희망TV 기금_케냐 (0.7%) 295,039,000 글로벌 DAFI 기금 (0.5%) 200,000,000 SBS 희망TV 기금_DR콩고 (0.3%) 131,670,000 난민 어린이를 위한 교육(EAC) (0.1%) 50,000,000 WASH 기금_방글라데시 (0.1%) 30,000,000 나인밀리언 캠페인 기금 (0.0%) 8,876,000 MBC W 기금 (0.0%) 6,670,000
총	40,799,844,385

*2017년 조성된 총 모금액 중 2억 5천만 원은 기금 사용 계획에 따라 당회계년도 이후 사용 예정입니다.

2017년 한국대표부 활동 보고



1월 신한카드&KB국민카드 포인트 기부

2017년에도 한국대표부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와 함께 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모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카드 적립 포인트를 전 세계 난민을 위해 유엔난민기구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2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난민보호 활동

한국대표부는 2017년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하이원 리조트의 마운틴콘도 스키하우스에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유엔난민기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정기후원에 동참해주셨습니다.

5월 삼성서울병원과 함께하는 난민 무료 건강검진 클리닉

한국대표부는 2017년 5월 20일 삼성서울병원, 난민NGO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Migration to Asia Peace)와 협력해 광주광역시에서 국내 거주 난민과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80여 명의 난민이 다양한 분야의 의료 검진과 상담을 받았고 모든 진료부스에는 통역 인력이 배치되어 원활한 검진을 도왔습니다.

6월 엔씨소프트문화재단 난민 아동 교육지원 업무 협약 체결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2017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한국대표부와 난민 아동 교육지원을 위한 후원금 3억 원 제공을 포함해 인도주의 옹호 활동 동참, 창의적인 교육기술 개발지원을 골자로 한 난민 아동 교육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앞으로 3년간 총 3억 원을 한국대표부에 기부하기로 했으며 후원금은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거주하는 로힝야 난민 아동 교육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6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함께하는 난민보호 캠페인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은 2017년 6월 20일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3개월 동안 한국대표부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주말마다 진행된 이 캠페인에서는 전 세계 난민이 처한 상황에 대한 퀴즈를 맞히는 워터드랩 이벤트를 비롯해 난민촌 가상현실(VR)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6월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제3회 난민영화제 개최

2017년 6월 24일 한국대표부는 난민지원네트워크와 함께 제3회 난민영화제를 주최했습니다. 이날 영화제에는 정우성 친선대사의 목소리를 통해 레바논에 사는 시리아 가족의 삶을 살펴보는 영화 <경계에서(Limbo)>, 주민과 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작은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구원(Salvation)>을 비롯해 총 다섯 편의 난민 소재 영화 및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습니다.

7월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2015-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난민 재정착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태국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던 미얀마 난민 30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은 1차 수용국에서의 현지 통합이 어렵거나, 자국 귀환도 불가능한 난민 중 대한민국으로의 재정착을 희망하는 이들을 유엔난민기구의 추천 및 정부 심사를 통해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7-8월 키자니아와 함께하는 난민 보호 캠페인

한국대표부는 2017년 7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키자니아 서울 및 부산 지점에서 어린이를 위한 난민 보호 직업 체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서울 지점에서는 모형 벽돌을 활용해 직접 헬터를 지어보는 체험을, 부산 지점에서는 헬터 모양 종이 저금통을 접어 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체험을 준비해 많은 어린이 방문객과 만났습니다.



8월 세계 인도주의의 날 토크 콘서트 공동 주관

한국대표부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총 28개의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가 함께 주최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 행사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했습니다. 8월 18일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는 유엔난민기구의 단편 다큐멘터리 <경계에서>를 상영해 정우성 친선대사의 목소리를 통해 레바논에 사는 시리아 난민 가족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크리스피 크림 도넛 '달콤한 나눔' 캠페인 기부금 전달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2017년 11월 7일 한국대표부에 공익 연계 캠페인 '달콤한 나눔'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 3,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간 매일 특정일을 '유엔 난민의 날'로 지정해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12개로 구성된 더즌 구매 시 1개 더즌을 무료 증정하고, 유엔난민기구에 100원이 적립되는 고객 참여 기부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의 후원금은 방글라데시의 로힝야족 난민 캠프에서 식수 및 위생 시설 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11월 제2회 난민 토크 콘서트 '난민, 우리의 이웃' 개최

한국대표부는 한국에 재정착한 미얀마 카렌족 난민 가족과 함께 제2회 난민 토크 콘서트 '난민, 우리의 이웃(Refugees are among us)'을 개최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는 2016년 대한민국의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카렌족 난민 싸에크리스 가족과 2012년부터 프리랜서 작가로서 태국 난민촌에서 카렌족 난민들을 만나온 장준희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를 초대해 카렌족 난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방한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가 2017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기간 그란디 최고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최성호 코이카 이사장 직무 대행을 만나 난민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를 요청했습니다. 또 국내 거주 난민과 난민 신청자, 국내 난민 단체, 국회의원, 기업 후원자, 정우성 친선대사로 만났습니다.



12월 로엔엔터테인먼트 로힝야 난민 후원금 전달

종합콘텐츠 기업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로힝야 난민을 위해 한국대표부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매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재능기부형 사회공헌활동 '로엔뮤직캠프'를 개최하고 '멜론뮤직어워드' 티켓 판매를 시작한 2016년부터 수익금 전액을 서울시에 기부해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음악이 주는 '치유'와 '희망'의 힘이 로힝야 난민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2017년 주요 숫자

1950년

유엔난민기구가 설립된 해입니다. 설립 이래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난민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30개국

유엔난민기구는 현재 13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88%

유엔난민기구 전체 직원 중 88%가 현장에서 난민 포함 강제 실항민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6,85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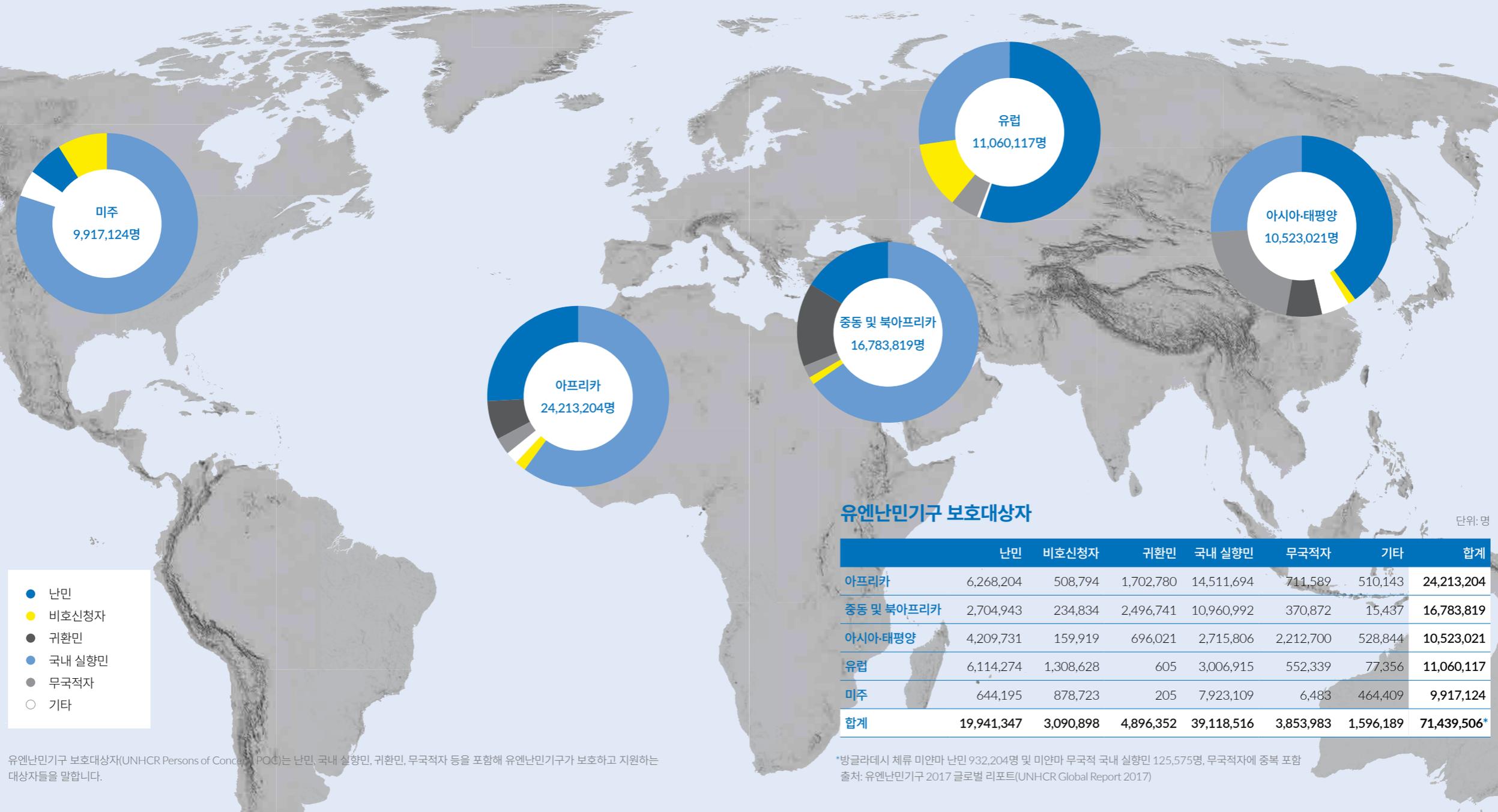
전 세계 2,540만 명의 난민을 포함해 6,850만 명이 강제로 고향을 떠나 실항한 상태입니다.

361회

2017년 긴급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61회 이상 전문 인력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72시간

유엔난민기구는 긴급구호 발생 시 72시간 내 최대 60만 명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UHCR Persons of Concern, POC)는 난민, 국내 실항민, 귀환민, 무국적자 등을 포함해 유엔난민기구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방글라데시 체류 미얀마 난민 932,204명 및 미얀마 무국적 국내 실항민 125,575명, 무국적자에 중복 포함
출처: 유엔난민기구 2017 글로벌 리포트(UHCR Global Report 2017)

유엔난민기구 사명 UNHCR Mission Statement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전 세계 난민보호와 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행동을 이끌고 조정한 의무를 UN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목표는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고자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사람이 비호를 신청할 수 있고, 타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며, 자발적으로 귀환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영구 정착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난민의 어려움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상임이사회 및 UN 총회는 난민 외에도 본국으로 돌아간 귀환민, 국내 실향민 그리고 국적이 논란이 되거나 없는 무국적자들에 대해서도 유엔난민기구의 개입을 허가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강제 실항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가 및 국가기관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인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기구의 모든 활동 가운데 아동 및 여성을 보호하고 이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 지역기구,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참여의 원칙을 고수하며 난민을 포함한 기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의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